

서호인의 '소설처럼'



그 뜨거운 말 -천현우 산문 '씻밥일지'

지난달 칼럼에서 서남 전라도 서사시라는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 시집 '그라시제라' (이소노미야)를 소개했다. 좀처럼 문학과 시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던 지역의 언어를 통해 집단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노래한 시집이다. 규격화된 말 바깥의 말로 구성된 시집이기에 그 말을 쓰지 않는 독자들에게 가닿을 수 있을까 내심 걱정이었지만, 다행히도 눈과 귀가 밝은 이들에게 통한 모양이다. 최근 2022년 '노작문학상'에 조정시인 시집 '그라시제라'로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변방의 언어로 사라질 수 있었던 음성과 의미를 그러모아 시로 쓴 시인의 애씀이, 그 노고와 시간이 대체로 인정받은 것 같아 다행스러운 마음이다.

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산문집이다. 저자 천현우는 중간지에 글을 쓰면서 필자로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중간지에서 보았던 그의 생생한 글과 현장에 밀착한 언어를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어 기뻐했다. 또한 그가 쓴 현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도리어 악화일로로 걷고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슬펐다. 이렇게 이 책은 읽는 이의 속마음을 뜨겁게 달궜다가 차갑게 식히며 단련시킨다. 스스로를 단련시킨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책과 이 책의 저자가 그러하다. 저자의 동료들도 그러할 것은 물론이다.

'그라시제라'가 시로서 한국전쟁 전후와 1960년대 서남 전라도 여성들의 일상 언어를 기록하고 복원했다면 '씻밥일지'는 2020년대 경상남도 공업지대(마산, 창원) 남성들의 현장 언어를 기록하고 각인했다. 전자의 시집에서 희극과 비극이 있듯이 '씻밥일지'도 읽으면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지난하고 엄혹한 현실에 주먹에 힘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 희비극은 필자의 특유의 개성이자 필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투리의 묵도 상당하다. "현우 너는 뭘 일해가 목고살 끼고?" 하며 시작해 비규격의 언어들이 귀에 쫄인다. 문학에서, 출판물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진짜 언어.

어. 이른바 표준어가 아닌, 교양 있는 서울 사람이 쓰는 말이 아닌 언어.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사용하는 언어가 르포의 생동감을 부여한다. '그라시제라'의 여성들이 '전쟁'과 '가난함'을 통과해 서로의 어깨를 걸었다면 '씻밥일지'의 청년은 '노동'과 '부당함' 통과해 허리를 펴고 세상을 잇는다.

작가 천현우는 용접공이다. 육체 노동자의 자부심으로 기술을 단련하고 성실히 일하지만 하청 노동자의 삶은 각박하기만 하다. 산업재해는 끝없이 일어나고 하청 노동자의 대우는 열악하다 못해 처참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삶에 무엇이랴 대답해야 하는가? 그는 말한다. "내일도 사부지기 함 때아 보자 이!" 지방 청년과 현장 노동자의 언어로 이를 돌파한다. 이 언어는 우리를 현실에 굴하지 않게 하고 부당함에 맞설 용기를 갖게 하고 결국 사람답게 살게 하는 언어이다.

그 언어가 '인 서울' 대학생의 언어가 아니어도 좋다. 586 정치인의 말씀이 아니어도 상관 없다.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들의 목소리는 현장에서, 각자의 사람에서 현현히 빛난다. 그 빛이 모인다. '씻밥일지' 아래로, 쇠처럼 단단하고 뜨겁게.

의료칼럼



김종선 고려인 광주진료소장 첨단우리병원장

고려인 광주진료소의 존재 이유

천만 원을 기부했고, 박유환 광주시 의사회장과 박병순 세종 요양병원장을 중심으로 의료진 20여 명이 2018년 3·1절부터 고려인 진료를 시작했다. 4년 차에 접어든 현재, 고려인 광주진료소는 진료 의사 40여 명을 포함한 60여 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양적으로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진료소 초기에는 고된 노동으로 지친 고려인들의 근육통 및 만성 피로를 위주로 치료했다. 그런데 근육통 등의 단순 진료나 비타민 수액 등의 단순 처방에 젊은 의료진은 시간이 흐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실상가상으로 중년의 의료진은 체력 탓에 참여도가 떨어졌다.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서해현 서광병원 원장님은 타의 모범이었고, 오형근 부장을 중심으로 한 광주보훈병원 진료봉사팀, 명재일 내과 원장님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진료소가 잠정 중단되자, 의료진의 이탈은 더욱 심해졌다. 진료소는 돌파구가 필요했고, 새로운 활력이 절실했다. 광산구 보건소 관리 의사인 박형준 선배에게 삼고초려 도움을 청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쁜 선배가 어렵게 도와주기로 했고, 많은 개선점을 알려 주었다. 지금은 선한 병원 이태민 원장이 온 몸을 던져서 국내 최고의 진료소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젊은 의사들이 분골쇄신 참여를 시작하니 의대생들도 기꺼이 선배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진료소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한 달에 두 번씩 씨네티료제단의 도움으로 혈액 검사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만성 질환이나 감염병을 찾아내고 있다. '가슴뛰는내과' 김광재 원장이 기부해 준 초음파를 통해 내과 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게 됐다. '최고안과' 김진만 원장이 기부한 안과 진단 기구, 엔టీ비이비후과 조후재 원장이 준비해 준 이비인후과 세트, 상무수치과 김수관 원장의 도움으로 다양한 질환의 진단·치료가 가능해졌다. 산부인과 진료를 위한 진찰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 지원에서 기부해 주기로 해서, 여성 질환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게 됐다.

1년에 2000만 원을 광주시에서 지원받아 의약품을 구매했는데, 지금은 환자가 많아서 외상으로 의약품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고맙게도 시에서 10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기로 해서 의약품 공급에 송뿔이 트였다.

진료소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진료소 자원 봉사자에게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일이다. 광주시의사회 최정섭 수석부회장의 노력으로 오는 16일 금요일 7시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고려인 광주진료소 후원 나눔 콘서트'를 한다. 이번이 두 번째로 의사회에서 진료소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보내니, 진료소에 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 이번 자선 콘서트에는 변진섭, 해바라기 등 유명 가수가 함께 한다고 하니, 지역 사회 많은 분들이 고려인 광주진료소를 후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우리나라 일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읍지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많다고 한다. 고려인 광주진료소는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식 등록하도록 사다리 역할을 해서, 아릅답고 살기 좋은 광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기고

추석과 한가위, 대보름달



서금석 문학박사·조선대 강사

이 그 하나이고, 조상에게 성묘를 했던 것이 나머지 이었다. 다만 명절의 이름이 서로 다르다. 중국은 중추절(仲秋節)이고, 우리는 추석(秋夕)이라고 했다.

중국 중추절의 의미는 지나치게 사무직적이고 단조롭다. '가운데 가을' 혹은 '가을의 가운데'라니 음력 8월을 이른다. 이에 반해 우리에게 추석은 '가을 저녁(夕)'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詩的) 표현인가? 한자 저녁 석(夕)은 밤에 뜨는 달(月)과 그 태생적 DNA가 같다. 낮에는 해(日) 그리고 저녁(夕)에는 달(月)을 연상시킨다. 한자에는 동그란(○) 표기(부수)가 없다. 고로 저녁 석(夕)자는 저녁의 달(月)로 초승달에서 시작하지만 둥근 보름달을 암시한다. 추석은 '가을 달'이다. 8월 가을 보름달이 추석(秋夕)이었다.

음력 8월 15일 명절을 언제부터 추석이라고 불렀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조선 초기 편찬된 '고려사'에서는 추석 때 관리들에게 휴가를 주었다. 그럼 최소한 고려 때는 추석이라고 불렀다. 고려 중기에 편찬된 '삼국삼기'에는 한자 '추석'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음력 8월 15일 명절을 우리는 어떻게 불렀을까? 모든 자료가 신라의 가배(嘉俳)에서 찾고 있다.

"신라 유리왕 때(서기 32년), 왕이 6부를 정하고서는 절반씩으로 나누어 두 부류로 삼고, 왕내 두 사람에게 각각 부락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무리를 조직하게 했는데, 가을 7월 16일부터 매일 아침 일찍 큰 부락의 들

에 모여서 길쌈을 하게 하여 밤 10시경에 그치게 하였다. 그리고 8월 15일에 이르러 그 성과의 다소를 살펴, 진 쪽이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이진 쪽에 사례하였다. 이렇게 하고서 가무와 온갖 놀이를 행하였는데, 그것을 가배(嘉俳)라고 불렀다."

가배(嘉俳)가 우리말 '가위' (가운데+가베)의 한자식 표현이라고 하는데,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성의 막노동용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진 쪽은 술과 음식까지 마련해야 했다. 노동력 착취였다. 추석의 명절 축제 분위기는 옛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힘든 노동의 고단함의 대가였음을 이해한다면 가배는 분명 축제였다.

우리말 '가위'가 한자음 '가배(嘉俳)로 표기되었다고는 하더라도, 신라의 길쌈 게임 '가배'는 '보름달'과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오히려 우리말 '가위'는 '한(大)과 결합하여 '한가위'가 되어 '한가운데'를 일컫고, 둥근 보름달 모양을 상기시킨다. '보름'은 '밝다'의 옛 명사형인 '보롬'이다. 밝고 둥근 대보름달 모양은 가운데를 둘러 품을 수 있다. '한가위'는 '한가운데'이고 곧 '대보름달'이다. 이것이 음력 8월 15일에 뜨는 대보름달로 한가위가 되었다.

따라서 한자 추석과 한가위는 전혀 다른 갈래의 어원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같은 날 같은 보름달을 둔 명절이 되었다.

社說

거리 두기 없는 추석 연휴 자율 방역 만전을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나흘간 이어진다. 가족이나 사적 모임 규모에 제한이 없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며,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이동량과 대인 접촉 증가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엿그제 발표한 '추석 방역·의료 대책'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대중교통 좌석도 '한 칸 띄어 앉기' 없이 전 좌석을 운영한다. 재택 치료(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는 중단 없이 운영한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은 연휴 기간에도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다만 비접촉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는 가능하다. 광주 지역 5개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무지구 5·18 민주화운동교육관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는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정상 운영한다.

정부는 전반적인 방역 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일상 회복에 치중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가 현 정부 방역 정책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올 가을·겨울에는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년간과 달리 거리 두기가 모두 해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는 강력한 거리 두기 시행에도 연휴가 끝난 뒤 확진자 수가 급증한 바 있다. 한때 이번 추석 연휴 연휴 정부의 통제 조치조차 없는 만큼 국민 스스로 개인위생을 지키는 자율 방역이 중요해졌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물론 호흡기·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경우 진료를 받은 뒤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지켜 재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보호구역 해제 제4수원지 수질 관리 철저히

지난해부터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 온 무등산 자락의 제4수원지가 결국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광주시는 북구 청풍동 제4수원지 일대 9.7㎢를 지난 5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1967년 준공된 제4수원지가 1981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41년 만에 보호구역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된 것이다. 광주시는 4수원지가 취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난해 5월 각화정수장 폐쇄로 준지 필요성이 없어진 점을 해제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가능성이 됐다. 4수원지 일대는 수변 경치가 빼어나 카페나 펜션 등 개발 수요가 큰 곳이다. 국립공원 지역이어서 자연공원법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단독주택 등 1·2층 근린시설 건축은 가능하다. 보호구역 내 사유지도 7만 2000여명에 달해 난개발 우려가 상존한다. 광주시는

대다수 사유지가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남게 돼 7000여 평 정도에서만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난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수질 관리도 걱정이다. 4수원지 상류에는 2020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복원지 모니터링이 진행 중인 평두메 습지가 있다. 4수원지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평두메 습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환경단체들이 줄곧 4수원지 인근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광주시는 보호구역 해제 공식화 직후 곧바로 환경단체, 마을 주민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꾸려 수질과 환경 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는 난개발과 환경 및 수질 오염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광주시 등 관계 당국은 개발 최소화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無等鼓

명절하면 떠오르는 풍경 중 하나는 귀성길이다. 고속도로에서 발이 묶여 '몇 시간 걸려 힘들게 도착했다'는 이야기들이 오가곤 했었다. 코로나19로 이런 모습도 보기 어려웠지만, 3년 만에 거리 두기가 사라진 올해 추석엔 가족을 만나러 가는 이들이 많을 듯하다.

영화감독 기타노 다케시는 "가족이란, 누구 보는 사람만 없으면 갖다 버리고 싶은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명절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나를 믿고 응원해주

는 '가족'이지 않을까. 추석, 그리고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 '명절'을 보내며 회포를 풀 것이다

명절이 되면, 가족이라는 이름은 더욱 애뜻해진다. 음악으로, 소설로, 영화로 만나는 가족이야기는 그래서 더 길게 다가온다.

조수미가 부르는 '바람이 머무는 날'을 들으면 사람들은 바로 '엄마'를 떠올린다. "바람이 머무는 날엔/ 엄마 목소리 귀에 울러/ 헤어져 있어도 시간이 흘러도/ 어제처럼 한결같이// 어둠이 깊어질 때면/ 엄마 얼굴 그려 보내/ 겨울 앞에 서서 미소

지으면/ 바라보는 모습/ 아껴 이리 닳았는지' 애절한 가사와 멜로디는 눈물샘을 자극한다. "그곳에서 울지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그 곳에 잡들지 않았다오"라고 노래하는 '내 영혼 바람 되어'는 지금은 우리 곁에 없는,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들이 많을 듯하다.

장편소설 '밝은 밤'과 '시선으로부터'를 읽다 보면 '엄마의 엄마의 엄마'를 생각해볼게 된다. 멋진 소설집 '쇼코의 미소'를 쓴 최은영의 '밝은 밤' 속 주인공 지

연을 따라 '엄마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정세랑의 '시선으로부터' 속 이 오랜만에 모여 '명절'을 보내며 회포를 풀 것이다

모녀들의 이야기에선 나를 만든 오래된 과거도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여섯 살부터 열여덟 살까지 소년의 성장기를 보여 주는 영화 '보이후드'는 또 어떤가. 여섯 살 소년을 캐스팅 한 후 같은 배우들로 12년간 매년 촬영한 영화는 한 아이의 성장사(史)이자, 가족의 연대이기도 하다.

명절 무용론이나 명절의 고달픔이 자주 등장하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추석은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이름을 읊조려 보는 마 얼굴 그려 보내/ 겨울 앞에 서서 미소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장 崔宰豪, and contact information.